

국민의당 지방선거 입지자 통합·분당 갈등에 속 타다

뉴스 현장

5개월 앞 향후 구도 '오리무중'

국민의당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통합·분당 갈등이 지속되면서 향후 정치구도가 어떻게 변할지 '오리무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5일 국민의당 광주시당과 소속 지방의원 등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갈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장기전이 되어가면서 아직까지 중앙당 차원의 지방선거 시행시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업무를 진행해야 할 광주시당과 전남도당도 지방선거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일찌감치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평가작업까지 마무리하는 등 지방선거 공천 준비에 전 걸음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가뜰이나 민주당에 비해 정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지역 내 조직 정비에 나서는데 본격적인 선거 준비작업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입지자들은 지방선거 준비도 당면 과제지만, 통합과 분당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합이 되거나, 통합파와 반대파가 결별해 분당이 될 경우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공천받을 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득실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의원 또는 군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기초의원들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인 만큼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정당 공천이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분당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당 관계자는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지방의원들과 출마에 정자들이 당원 모집을 꾸준히 하면서 지역 바닥민심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당원 모집을 상당수 한 일부 입지자들은 당원 명부를 시당이나 도당에 접수하지 않은 채 향후 분당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지방의원들과 입후보 예정자 대다수는 안철수 대표 등 통합파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통합·분당 결정이 이뤄져야 본격적인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데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지역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국민의당 소속 이은방 광주시의회의장은 "이러려고 국민의당에 왔는지 자괴감이 빠진다. 3년 전 탈당해서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에서 당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는데 당파 싸움에 지역 정치인들만 죽이는 꼴이다"면서 당 지도부의 조속한 통합·분당 결정을 촉구했다.

박준수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상당수의 지방의원들과 입지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준비하고 목표해온 꿈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중앙당은 아직도 통합·분당 결정을 못하고 지지부진한 싸움만 이어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일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통합과 분당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겠지만,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은 '짜각 짜각'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면서 "통합이든 새정당 출마이든 빠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자동차 번호판 대란 오나 ▶6면

아이가 꿈이다-저출산 문제 ▶18면

한승택 "흠린 한 번 처야조" ▶20면



'전라도 방문의 해' 일본 관광객 '한일 교류 하카타회' 회원과 일본 관광객 50여명이 15일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남도, 광주시와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운영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전공대 입지 확장성·발전방향 최우선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공고 ... 국제경쟁 입찰 추정비용 43억8200만원

한국전력이 설립을 추진중인 한전 공과대학(가칭)의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한전은 지난 12일 '한전의 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용역' 제안요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제안요청서에 담긴 용역의 과업범위는 환경분석과 설립방향, 실행방안, 설립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용역 1단계(설립 타당성 및 방향정립)에

서는 설립 타당성 도출과 정체성 및 방향 정립, 대학명칭 개발을 검토한다. 2단계는 분야별 실행방안 설계와 설립지원 등 '대학설립 기본계획 수립'과 캠퍼스 건립 컨셉, 분야별 계획서 수립이 담긴 '캠퍼스 기본계획 수립'이 이뤄진다.

특히, 한전은 국내외 대학 입지 특성 분석과 대상지역(광주·전남)의 자연·인문·사회·교육 등 입지환경을 통해 잠재 확장성 및 학교발전 방향을 고려한 적정 부지 규모를 제시할 것을 포함시켰다.

후보지별 기본 및 일반 현황 조사와 장·단점 분석, 후보지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종합 검토, 광주·전남 지역 내 입지분석 및 후보지 제안(필요시) 등도 제시했다.

또 '입지선정 평가기준'으로 국내외 입지선정 추진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과 주변 환경, 대학운영 방안 등을 고려한 최적 입지조건 도출, 세부 평가 기준 항목 분석 및 중요도에 따른 항목별 가중치 제시를 담았다.

이렇게 입지선정 평가기준이 마련되면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준을 수립, 추후 후보지별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입지를 선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입지선정 업무에 대한 추진시기는 해당 프로젝트 추진경과에 따라 한전과 협의하며, 용역은 국제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용역입찰 추정비용은 43억8200만원(부가가치세·사급자재비 포함)이다.

한전공대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은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입찰 참가신청이 다음달 22일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3월 업체를 선정해 용역에 착수하게 되면 8월경 용역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나주·영암 겨울철 오리사육 제한 검토

전남도, AI 대책 극약 처방

전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으로 극약 처방을 내렸다.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와 영암에서 겨울철 오리 사육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이다.

(관련기사 2면)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두 지역에 동절기 오리 사육 휴지기를 시행하는 방안

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나주와 영암은 전국 사육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리 주산지다. 나주에 90여 농가, 영암에 80여 농가가 오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H5N6형 AI가 해마다 반복되는 데다, 올해는 전남지역 오리농장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밀집 사육 영향으로

방역만으로는 AI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남에서만 수십억원을 살처분 비용으로 쓰는 현실을 고려하면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휴지기를 시행하고 차라리 보상금으로 지출하는 게 경제성이나 동물 복지 차원에서 효율적이라는 여론도 있다.

전남에서는 올 겨울들어 1차 27개, 2차 28개 등 모두 55농가에서 오리 사육을 중

단했다. 10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육 제한에 참여한 29곳까지 합하면 84농가가 휴지기에 참여했다.

이같은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사육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농식품부와 논의에서 공감이 이뤄지면 계열사 등 사육업계 여론을 수렴하고 겨울철 오리고기 수급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AI 토착화 우려에 대비해 위험지역 축사 이전을 추진한다. /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혁신적 마스크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NEW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건강하지 않은 피부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삼에서 찾은 강력한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 자음생마스크

인삼 뿌리의 핵심 에너지를 담아 집중적인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음생크림의 부드러움 그대로를 담은 이중 구조 더블 랩핑 시트™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자음생마스크로, 경량해보이지 못한 혁신적인 마스크 인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Sulwhasoo